

199.
■기자회견문 <덕성여대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원로 성명>

교육부는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덕성여대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지난 1학기 한상권(韓相權)교수의 재임용탈락에서 발단된 덕성여대사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교실들은 텅 비어 있고, 학사를 처리해야 할 학교 행정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덕성여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한상권교수 즉각 복직'과 '민주적인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수업과 학사를 보조하는 조교들과 직원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학부모들까지 단체를 구성하여 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것처럼, 현 덕성여대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공기(公器)인 사학을 재단의 사유물로 여겨온 전 재단이사장 박원국(朴元國)씨의 그릇된 교육관 때문입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교무행정 및 학사행정에 개입하는 등 학교운영의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데 책임을 물어 박원국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단행한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덕성여대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사립학교법상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 이사진이 사태수습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성여대 교수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 이사진은 한상권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켜 덕성여대분규를 초래하였고, 박원국 전이사장의 김용래총장 해임기도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학내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박원국 전이사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여과없이 묵인해준 현 이사진과, 그의 영향력하에 있는 총장직무대리 및 보직교수들이 여전히 덕성여대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니, 어떻게 올바른 사태 해결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덕성여대의 파행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정의 실현과 사학의 정상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는 덕성여대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다시 한번 커다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덕성여대 전구성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현 이사진을 조속히 사퇴시키고 올바른 교육자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을 선임하여 관선이사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새로 파송하는 관선이사는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한상권교수를 즉각 원상복직시키고 학내의 누적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내의 전구성원이 동의하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신입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덕성여대는 모든 이들의 축복속에서 전통있는 사학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육부가 현 이사회를 계속 방치해둔다면, 덕성여대사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

답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경우 박원국 전이사장을 전격적으로 해임한 교육부의 개혁의지 또한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바른 교육자적 식견을 갖춘 관선인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관선이사가 조속히 파견되어 덕성여대가 사학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7. 10. 29

덕성여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서명자 일동

김창국(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 참여연대공동대표), 주종환(동국대학교명예교수), 김성수(전 성 공회대주교), 박상증(전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전 한겨레신문사 장, 참여연대공동대표), 강만길(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유현석(변호사, 경실련공동대표), 김윤환(고려대학교명예교수, 경실련공동대표), 이설조(불국사주지스님, 경실련공동 대표), 박영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장), 금영균(목사), 조승혁(목사, 기독교사회산업개발원장), 원경선(풀무원 한 살피 이사장, 경실련환경개발센터이사장), 이장호(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구석모(전 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김성남(변호사, 전대한변협사무총장), 손봉호(서울대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형규(목사), 변형운(서울대학교명예교수), 이윤구(전 한국선명회 회장), 이효재(전 이화여대 교수), 조창현(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교수), 리영희(한양대 언론 정보대학원 교수), 한승헌(변호사)

<이상무순>